

스마트폰으로 해외서도 집안 가전 작동한다

집밖서 에어컨 켜고 세탁기 돌리고 '꿈이 현실로' '삼성 스마트홈' 한·미·영 등 세계 11개국서 출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오븐, 로봇청소기 등 집안의 생활가전 제품과 조명을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삼성 스마트홈'이 선보였다. 말 한마디로 취침 환경을 만들고 해외에서도 집안의 가전을 작동시키거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

삼성전자는 2일 한국과 미국, 영국 등 11개국에서 '삼성 스마트홈'을 공식 출시했다. 삼성 스마트홈은 이번 출시와 함께 제공되는 '삼성 스마트홈 앱(App)'을 통해 구현된다. 올해 출시된 삼성 생활가전 제품과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4.0 이상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까지 해당되며 향후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러기기 한번에 작동 '생활변환' = 스마트홈은 무더운 여름,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에어컨을 작동해 시원하게 만들고, 집 밖에서 세탁기를 실행시켜 귀가시간에 맞춰 세탁이 끝나게 하는 등 편리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제공한다. 또 TV 리모컨에 '취침 모드'라고 말하면 TV와 에어컨이 꺼지고 세탁기 등의

상태를 알아서 편안한 취침환경을 만드는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조명과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홈과 연결해 조명을 켜거나 끄고 로봇청소기를 작동하거나 충전하는 등 사용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멀티제어의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어컨에 달린 카메라로 아무도 없는 집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진을 찍어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알려주고 향후에는 밖에서 로봇청소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집안의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삼성 스마트홈 앱(App)으로 제품 연결·동작도 간편하게 = 삼성 스마트홈은 올해 출시된 스마트에어컨 Q9000, 버블샷3 W9000 세탁기, 스마트오븐, 스마트 TV·사운드바, 안드로이드 4.0 이상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 S5 등의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인 삼성 기어2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

향후 냉장고, 조명, 로봇청소기, 기어핏(Fit) 등을 추가하고 에너지관



삼성전자 모델이 2일 '삼성 스마트홈 앱(APP)'을 설치한 '갤럭시 S5' 스마트폰으로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삼성 스마트홈'을 시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리·보안과 같은 영역의 신규 서비스가 발굴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삼성 스마트 TV에 설치된 스마트홈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자동으로 나타나 제품 간

연결과 등록이 쉽다. 스마트홈 앱은 삼성앱스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홈 전용 웹 사이트(www.samsung.com/smarthome)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홍원표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 사장은 "삼성 스마트홈은 고객들에게 '스마트한 삶,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KT 통신장애 무사고 비결은 촘촘한 기지국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장애 발생으로 가입자들이 먹통의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발생한 가운데 KT는 LTE 서비스 도입 이후 단 한차례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관심을 받고 있다.

KT는 이에 대해 이동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지국을 보유한 점을 비결로 꼽았다.

KT에 따르면 LTE 서비스의 특성상 특정 기지국에서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속도와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이동사들의 촘촘한 망 설계·투자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가입자 규모로 따져볼 때, KT는 가입자당 가장 많은 광대역 LTE 기지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대비 운영중인 광대역 LTE 기지국 수는 각각 SKT의 1.8배, LGU+의 2배에 달한

가입자당 기지국 수 SKT 1.8배 LGU 2배

다고 KT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는 스마트폰 상용화와 함께 데이터 사용자 급증을 예견하고 2012년 LTE 망에 가상화 시스템을 적용한 '워프'(WARP)를 도입했다. 워프는 데이터 트래픽 상황과 가입자 분포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해 데이터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가상화' 기술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트래픽 분산기술도 특징이다. KT는 매년 총장 축제가 열리는 금남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이동기지국 설치,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음악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영주

체육관이나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 도 공원이 있는 날에는 이동기지국을 설치해 해당지역의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야구장이나 축구장과 같이 관중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주요 경기장에는 이미 최대관중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기지국 용량 확보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LTE 사용자가 많아진 것을 감안, LTE 데이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3G 사용자와 더불어 LTE 사용자 역시 3G 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3G 기지국 자원 역시 함께 증설했다.

한편, KT는 특정시기 인파가 몰리는 주요 행사지역의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해 과전에 위치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통해 통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초박형 카메라 'NX 미니' 출시 삼성전자가 가장 얇고 가벼운 렌즈교환형 미러리스 카메라 'NX 미니'를 국내에 출시했다. 지난 1일 삼성 스마트카메라에서 진행한 '셀카 캐스팅' 시즌 1의 우승자 이아라씨(왼쪽)가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NX 미니로 '셀피' 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LG유플러스 이어 SKT·KT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오는 5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존의 음성과 문자 무제한 요금제에 이어 데이터 무제한을 더한 상품을 내놓은 것은 LG유플러스가 영업 재개를 앞두고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SK텔레콤도 기존 일부 요금제의 데이터 제한을 해제했다. KT 역시 3일 비슷한 성격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LG유플러스가 2일 출시한 요금제는 월 8만 원에 광내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 LTE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LTE8무한대 80'. 이 회사는 이 요금에 5000원을 더하면 전용 부가서비스 8종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LTE8무한대 85'도 선보였다.

LTE8무한대 85 요금제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외에 ▲모바일TV 'U+HDTV' ▲프로야구 전용앱 'U+프로야구' ▲영화화인서비스 '티켓플러스' ▲클라우드 서비스 'U+Box'(100GB) ▲KT도 무제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총 1만5300원 상당의 유료 부가 서비스가 무료다.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면 요금제별로 매월 1만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실제 비용은 각각 6만2000원과 6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SK텔레콤=SK텔레콤도 기존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요금제는 'LTE전국민 무한 75+안심음선팩', 'LTE전국민 무한 85', 'LTE전국민 무한 100' 등 3종이다. 모두 기존에 있던 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무한 75 요금제 가입자는 월 5000원인 '안심음선'을 추가하면 월 기본 제공량 8GB에 매일 2GB씩 추가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무한 85, 무한 100 요금제도 각각 12GB, 16GB인 월 기본 제공량에 매일 2GB씩 더 준다.

하루 사용량이 2GB를 넘을 때는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속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제공량을 초과한 이용분에 대해선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았으며 망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KT도 무제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 "알뜰폰 시장 진출" 이상철 부회장 "대기업 진출 논란 대상 안돼"

LG유플러스가 알뜰폰(MVNO) 시장 진출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출설에 관한 질문에 "국민이 (알뜰폰을) 원하고 있어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알뜰폰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자회사 미디어그룹을 통해 알뜰폰 시장 진출을 타진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은 "알뜰폰 수요가 점차 커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쳤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만큼 그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알뜰폰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인한 논란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대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나와 있는 곳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기업 진출이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함에 따라 알뜰폰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CJ 계열인 CJ헬로리전과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시장 진입으로 KT의 시장 진입설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KT는 2011년 자회사 KTIS를 통해 알뜰폰 시장 진출을 모색했다가 부류했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전문(전대1분)

★전대상대1분(웅봉지구코너)★
신축 4층 4룸2개 (상가 2칸, 4층주택)
엘리베이터 시공, 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850만(연 1억)
매가 12억(보1억 8천) 수익률 13%

★전대정문,후문1분(신축4층룸2개)★
1층 상가, 4층주택, 월수익 400만 매가 6억 7천

★서구화정동신동아APT★
(신축5층 근린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11대, 1층 상가 85평, 2층 상가 85평, 3층 룸9개, 4층 룸9개)
월수익 1200만 (보3억 8천) 매가 18억

★북구용봉동신축4층룸14개★
(인접1개) 보2600 월470 용2억 매가 7억 5천

★나주이창동KTX역5분거리★
원룸 18개 보 800만 월 540만 매가 4억6천

★나주혁신도시상가분양임대★
빛가람로 중심도로 접 건설회사
1~7층까지 현재 분양 임대중

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수익성상가 매매전문

수완지구상가매매
- 한도빌딩(대면5차이패드 후문 비로로) 1층상가매매 18평 (보2천 월130 용 1억5천) 매가 4억 ▶3억 5천(할인가)
- 한솔빌딩 3천세대 모이APT입구 3층 상가 매매 85평 (보3천 월 200용 2억 5천) 매가 4억 ▶3억 3천(할인가)
- 엘스빌딩 롯데대면 대문면3층 상가 매매 62평 (보3천 월 180만 용1억5천) 매 3억 ▶2억 4천(할인가)
- 월계동 첨단지구 2층 대문면 빌딩 오피스 스퀘어 62평 매 2억 ▶1억 7천(임대 보증금 2,000에 월90만원 용자 1억2천 개)

서구 쌍촌동 발파매매 (원룸형 오피스텔)
- 원룸형 빌라(11평) 보200 월 27만 매가 4500 ▶3800만(할인가)
- 원룸형 빌라(12평) 보200 월 28만 매가 4500 ▶3900만(할인가)
- 투룸형 빌라(14평) 보300 월 40만 매가 5500만 ▶4800만(할인가)

수원상가임대
-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
- 3층임대 45평 보2천 월110
- 3층임대 20평 보1천 월 60
- 3층임대 62평 보3천 월150

나주혁신도시 상가분양임대전문
1~7층 까지 현재 성황리 분양임대중

010-6832-9700
010-2676-703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상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병,의원 사옥,학원 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평 228평 상가,주택,원룸등 18 개 전세 1억 2천선에 월 500선 매도 9억 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4층건물 322평 은행 3개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 (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 (442)6층 건물 3656㎡(1015)매도 36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땅 공장,창고등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임대·투자

- 쌍촌동 원룸, 투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 지하 철 천천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수익 300 매도가 3억 6천
- 투자,매월등 매월수지이익 경관좋은 빌라,다세대적합 자연녹지 5520㎡(1670) 매도가 31억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층 주거지 674㎡(316)다가 구,다세대적합 공시지가 4억 3천 매도 4억 5천
- 한라봉농장 나주시 반남면 7187㎡(2178) 연 6천만원정 도 수입 전원생활에도 좋은 3억8천5백만원
- 교환도 가능한 산 보성군 특량면 68430㎡(20700) 1억 천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벽파항에서 약 2km 산 16860㎡ (5100)사찰,별장부지등 투자에 적합 270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 삼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 쌍촌동 광산로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 쌍촌동 5층건물 매 15억(보 1억7천 월656만인 포함)
- ▶ 회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포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렌차이즈 입점)
-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원룸11 투룸3 주인세대) 매 9.5억(보3.3억 월477만)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서구 쌍촌동 대지 5,000㎡ 32억(원룸단지적합)
- ▶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54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집종지 6,300㎡ 매매 50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권지역 전 29,800㎡ 39억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전234㎡) 매매 7.2억
- ▶ 영일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